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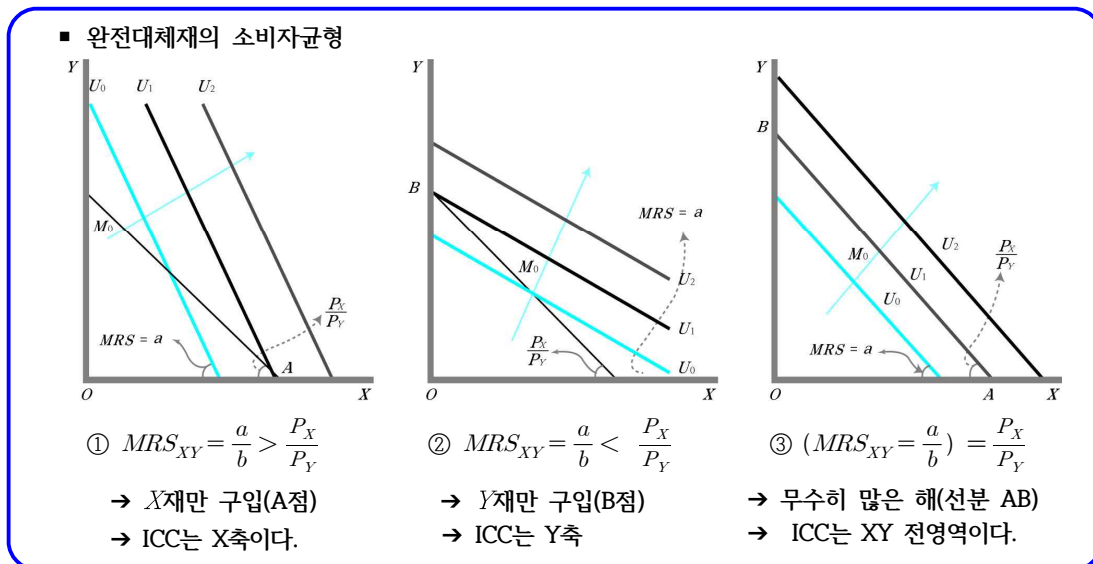
	X재(개)	Y재(개)		X재(개)	Y재(개)
①	0	10	②	15	5
③	24	2	④	30	0

풀이) 답 ④

완전대체재 [$U(X, Y) = aX + bY$] 인 경우 : $MRS_{XY} = \frac{a}{b}$ (일정)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우하향직선이므로 원점에서 볼록한 무차별곡선과 같이 일반적으로 한계 효용균등의 법칙이 성립하는 점에서 소비자 균형점이 구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석해(한재화만 구입)가 나오거나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기도 한다.



$$MRS_{XY} = \frac{a}{b} = \frac{1}{2} > \frac{P_X}{P_Y} = \frac{2}{6} = \frac{1}{3} \text{ 이므로 } \rightarrow \text{X재만 구입(A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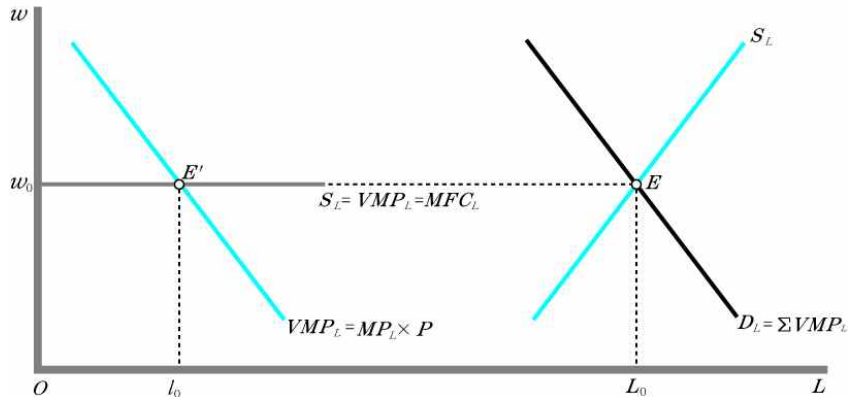
따라서 X재의 시장가격은 2만 원이고 예산은 총 60만 원이므로 X재만 30단위 소비한다.

4. 사람들의 선호체계가 변화하여 막걸리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자. 이와 같은 막걸리 가격 상승이 막걸리를 생산하는 인부의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막걸리를 생산하는 인부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 ①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증가하여 고용량은 증가하고 임금은 증가한다.
- ②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증가하여 고용량은 감소하고 임금은 증가한다.
- ③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감소하여 고용량은 증가하고 임금은 감소한다.
- ④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감소하여 고용량은 감소하고 임금은 감소한다.

풀이) 답 ①

■ 생산요소시장의 단기균형



➡ 개별기업

노동수요곡선 : $VMP_L = MP_L \times P$
 노동공급곡선 : 가격수용자이므로
 수평선인 $w_0 = AFC_L = MFC_L$

➡ 전체시장

노동수요곡선(D_L): 개별기업의 노동수요곡선 수평합
 노동공급곡선(S_L): 개별노동자의 노동공급곡선 수평합

$VMP_L = MP_L \times P$ 이므로

가격(P)이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증가하여 VMP_L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요소수요가 증가하므로 고용량은 증가하고 임금은 상승한다.

5. 어느 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100명이다. 이들 중 70명은 취업자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20명일 때, 이 나라의 실업자의 수는?

- ① 30명 ② 20명 ③ 10명 ④ 0명

풀이) 답 ③

15세 이상의 인구=생산가능인구(100)		
비경제활동인구(20) (주부, 학생, 환자, 군복무자, 실망노동자 등)	경제활동인구(B)	
	취업자(70)	실업자(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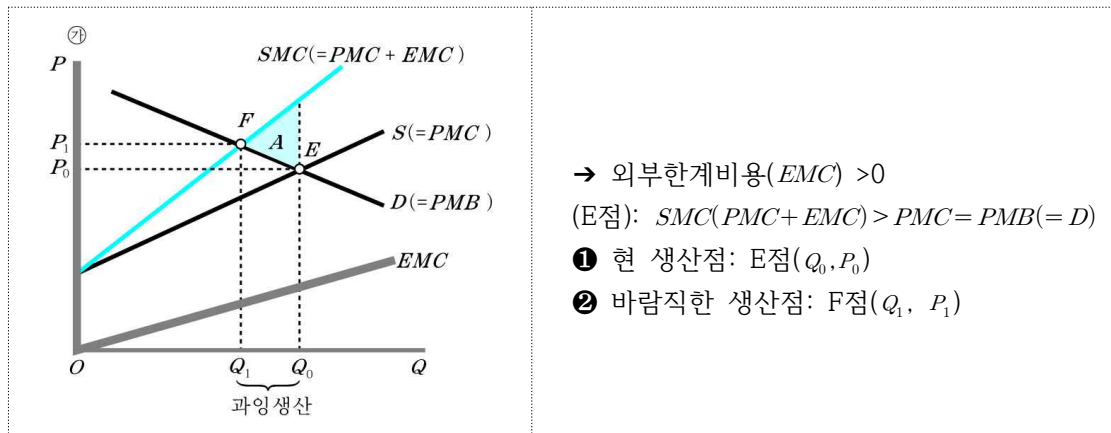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경제활동인구는 80명이므로 실업자는 10명이다.

6.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독점기업을 고려하자. 외부불경제의 크기는 이 기업의 생산량 Q 에 비례하는 kQ 이다. 이 기업의 총비용은 $50 + 0.5Q^2$ 이고 이 시장의 수요량은 가격 P 의 함수 $Q = 200 - 2P$ 로 주어진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50이다.
 ② $k=20$ 일 때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독점기업에 kQ 의 조세를 부과하면 된다.
 ③ $k=25$ 일 때 시장의 거래량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고 있다.
 ④ 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75로 설정할 것이다.

풀이) 답 ②

➡ 생산에 있어서 외부불경제(오염, 소음)



문제의 조건을 정리하면 $EMC=kQ$, $PMC=50+0.5Q^2$, 수요함수 $Q=200-2P$ 이므로 $PMB=100-0.5Q$ 이다.

$SMC(PMC+EMC)=50+kQ+Q^2$ 이다.

k 값이 아직 미지수 이므로 이윤극대화 산출량과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격은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③도 옳지 않다.

한편, k 값에 관계없이 $EMC=kQ$ 만큼의 조세가 부과되면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바람직한 생산점이 달성된다.

7. 어느 경제에서 생산량과 기술 및 요소 투입 간에 $Y=AF(L,K)$ 의 관계가 성립하며, $F(L,K)$ 는 노동, 자본에 대하여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Y , A , L , K 는 각각 생산량, 기술수준, 노동, 자본을 나타낸다.)

- ① 생산요소인 노동이 2배 증가하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한다.
- ②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한다.
- ③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2배로 높아지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2배 증가한다.
- ④ 생산요소인 자본이 2배 증가하고 기술수준이 2배로 높아지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2배 증가한다.

풀이) 답 ③

$F(L,K)$ 는 노동, 자본에 대하여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산함수는 대표

적으로 $F(L,K) = \sqrt{LK} = L^{\frac{1}{2}}K^{\frac{1}{2}}$ 이며

이 때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MP_L)은 $MP_L = \frac{\partial Q}{\partial L} = \alpha AL^{\alpha-1}K^\beta = \frac{1}{2}\left(\frac{K}{L}\right)^{\frac{1}{2}}$ 이므로

- ① 생산요소인 노동이 2배 증가하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감소한다.
- ②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불변
- ③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2배로 높아지면 A 가 2배되므로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2배 증가한다. (O)

8. A는 현재 시가로 1,600만 원인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도난당할 확률이 0.4라고 한다. A의 효용함수는 $U=2\sqrt{W}$ (W는 보유자산의 화폐가치)이며, 보험에 가입할 경우 도난당한 귀금속을 현재 시가로 전액 보상해준다고 한다. 보험 가입 전 A의 기대효용과 A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기대효용	최대보험료
①	36	1,276만 원
②	48	1,024만 원
③	36	1,024만 원
④	48	1,276만 원

풀이) 답 ②

(1) 기대소득(기대치) [expected income]

기대소득(기대치)이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금액(소득)의 크기를 의미한다.

$$\text{기대소득} : E(w) = p \cdot w_1 + (1-p)w_2$$

$$E(w) = 0.6 \cdot 1,600 + 0.4 \times 0 = 960 \text{ 만원}$$

(2)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기대효용이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효용의 기대치를 의미한다.

$$\text{기대효용} : E(U) = p \cdot U(w_1) + (1-p)U(w_2)$$

$$E(U) = 0.6 \times 2\sqrt{1,600} + 0.4 \times 0 = 48$$

(3) 확실성등가와 위험프리미엄

1) 확실성 등가(대등액) (certainty equivalent: CE)

확실성 등가란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대되는 효용의 기대치인 기대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재산의 크기를 의미한다.

$$2\sqrt{W} = 48 \Rightarrow \sqrt{W} = 24 \quad \therefore W = 24^2 = 576$$

2) 위험프리미엄 (risk premium: RP)

위험프리미엄이란 불확실한 자산을 확실한 자산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text{위험프리미엄} = \text{기대소득}(E(w)) - \text{확실성 등가}$$

(4) 위험기피자의 적정보험료의 산정

1) 공정한 보험료

기대 손실액의 크기는 (자동차 현재 가치-기대치) $1,600 - 960 = 640$ 이므로 공정한 보험료는 640이다. 이 때 보험사의 이윤은 0이다

2) 최대한 보험료

A는 위험기피자이므로

$$\begin{aligned} \text{최대보험료} &= \text{보석의 현재 가치} - \text{확실성등가(CE)} \\ &= \text{공정한 보험료} + \text{위험프리미엄(RP)} \end{aligned}$$

$$\text{최대보험료} = \text{보석의 현재 가치} - \text{확실성등가(CE)} [1,600 - 576 = 1,024(\text{만원})]$$

9. 인플레이션은 사전에 예상된 부분과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경로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 ②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 ③ 피셔(Fisher) 가설이 성립하게 된다.
- ④ 장기계약이 만들어지기 어렵게 된다.

풀이) 답 ③

피셔의 방정식(가설)[Fisher's equation]

명목이자율은 이번 기 실질이자율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명목이자율}(R_t) = \text{실질이자율}(r_t) + \text{기대 인플레이션율}(\pi_t^e)$$

피셔의 방정식(가설)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적용되므로 ③이 옳지 않다.

10. 적극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의 사용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에서 정책의 동태적인 비일관성(또는 시간 비일관성)의 의미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책의 집행과 효과 발생 과정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정책 당국은 시장의 암묵적 신뢰를 깨고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할 인센티브를 가진다.
- ③ 정권마다 다른 정책의 방향을 가지므로 거시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다.
- ④ 시장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정책의 방향을 시의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풀이) 답 ②

최적정책의 동태적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 動態的 非一貫性]

(1) 개념

루카스비판에서 보여지듯이 경제정책은 독립적인 일회적사건이 아니라 여러 기간에 걸쳐 정책당국과 합리적인 경제주체 사이에 벌이는 동태적게임으로 볼 수 있다.

현재시점에서 수립된 최선의 정책이 미래에도 최선의 정책이라면 이러한 정책은 동태적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시점에서 수립한 최선의 미래정책이 미래가 도래했을 때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면 동태적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화폐금융정책에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축소 화폐금융정책)을 공표한 후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당국은 고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현시점의 최적정책이 되어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을 사용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진다.

즉, ② 정책 당국은 시장의 암묵적 신뢰를 깨고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할 인센티브를 가진다.

11.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다음 표와 같다고 하자.

시간당 임금(원)	6	7	8
수요량(개)	40	30	20
공급량(개)	20	30	40

시간당 최저임금을 8원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의 규모는 ㉠이고, 이때 실업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보조금으로 소요되는 필요 예산이 ㉡이다. ㉠과 ㉡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10, 20 ② 10, 40 ③ 20, 40 ④ 20, 80

풀이) 답 ④

비자발적 실업의 규모는 최저임금을 8원 일 때 공급량(개)과 수요량(개)의 차이이므로 $40-20=20$
 이때 실업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보조금은 40명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의 차이가 $8-6=2(\text{원})$ 이므로
 $40 \times 2 = 80(\text{원})$ 이다.

12.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개방경제에서, <보기> 중 이 경제의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는(환율 상승)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원유 수입액의 감소
- ㄴ. 반도체 수출액의 증가
- ㄷ.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위축
- ㄹ. 자국 은행의 해외대출 증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풀이) 답 ④

- ㄱ. 원유 수입액의 감소 $\Rightarrow$ 외환수요감소 $\Rightarrow$ 환율하락
- ㄴ. 반도체 수출액의 증가 $\Rightarrow$ 외환공급증가 $\Rightarrow$ 환율하락
- ㄷ.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위축 $\Rightarrow$ 외환공급감소 $\Rightarrow$ 환율상승
- ㄹ. 자국 은행의 해외대출 증가 $\Rightarrow$ 외환수요증가 $\Rightarrow$ 환율상승

13. 어떤 독점기업이 시장을 A와 B로 나누어 이윤극대화를 위한 가격차별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A시장의 수요 함수는 $Q_A = -2P_A + 60$ 이고 B시장의 수요함수는 $Q_B = -4P_B + 80$ 이라고 한다. (Q_A , Q_B 는 각 시장에서 상품의 총수요량, P_A , P_B 는 상품의 가격임). 이 기업의 한계비용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2원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A시장과 B시장에 적용될 상품가격은?

- | | <u>A시장</u> | <u>B시장</u> |
|---|------------|------------|
| ① | 14 | 10 |
| ② | 16 | 11 |
| ③ | 14 | 11 |
| ④ | 16 | 10 |

풀이) 답 ②

제1시장의 한계수입을 MR_1 , 제2시장의 한계수입을 MR_2 일 때 가격차별 시 이윤극대화조건은 다음과 같다.

$$MR_1 = MR_2 = MC$$

$$Q_A = -2P_A + 60 \Rightarrow P_A = -\frac{1}{2}Q_A + 30 \therefore MR_A = -Q_A + 30$$

$$Q_B = -4P_B + 80 \Rightarrow P_B = -\frac{1}{4}Q_B + 20 \therefore MR_B = -\frac{1}{2}Q_B + 20$$

따라서 $MR_1 = MR_2 = MC$ 을 적용하면

$$MR_A = -Q_A + 30 = 2 \Rightarrow Q_A = 28 \quad \therefore P_A = -\frac{1}{2} \times 28 + 30 = 16$$

$$MR_B = -\frac{1}{2}Q_B + 20 = 2 \Rightarrow Q_B = 36 \quad \therefore P_B = -\frac{1}{4} \times 36 + 20 = 11$$

14. 중앙은행이 테일러 준칙(Taylor rule)하에서 통화정책을 실행한다고 하자.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같고 현재의 생산량이 잠재생산량 수준과 같을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펼친다.
- ④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갭과 생산량 갭이 모두 양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통화정책을 펼친다.

풀이) 답 ③

중앙은행은 아래와 같은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조정한다.

(단, i 는 명목이자율, r 은 현재 실질이자율, π 는 인플레이션율, π^* 는 목표 인플레이션율, Y^* 는 잠재 GDP, Y 는 실제 GDP, $\frac{Y^* - Y}{Y^*}$ 는 총생산 갭이다.)

$$i = r + \pi + \alpha(\pi - \pi^*) - \beta \frac{Y^* - Y}{Y^*}$$

주어진 조건에서 $\pi = \pi^*$, $Y^* = Y$ 이므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펼친다.

15. 최근 A는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현금 5천만 원을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예치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 경제의 법정지급준비율은 20%라고 할 때, 예금 창조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A의 예금으로 인해 이 경제의 통화량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 ㄴ. 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A의 예금으로 인해 경제의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 ㄷ. 전체 통화량 가운데 민간이 현금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A의 예금으로 인해 경제의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 ㄹ.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법정지급준비율이 25%로 인상되면, 인상 전보다 A의 예금으로 인해 경제의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풀이) 답 ③

최초의 대출금에 따른 총예금창조액(D^G)과 순예금창조액(D^N) ★

최초 대출금	총예금창조액(총 통화량)	순예금창조액(통화량 증가액)
본원적예금(W)	$\frac{1}{z} W$	$\frac{1-z}{z} W$
초과지준금(Z_1)	$\frac{1}{z} Z_1$	$\frac{1}{z} Z_1$

◆ 초과지급준비금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순예금창조액(통화량 증가분)은 예금창조액과 동일하다.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현금 5천만 원을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예치하므로

총예금 창조액을 의미하므로 $\frac{1}{z} W = \frac{1}{0.05} \times 5,000 \text{ 만} = 2 \text{ 억} 5,000 \text{ 만}$

한편 통화승수는 $m = \frac{M}{H} = \frac{M}{C+Z} = \frac{1}{c+z(1-c)}$ 이므로

$$[M = C + D, \quad H = C + Z, \quad c = \frac{\text{현금통화}(C)}{\text{통화량}(M)}, \quad z = \frac{\text{실제지준금}(Z)}{\text{예금통화}(D)}]$$

ㄱ, ㄴ, ㄷ이 옳다.

16. 어떤 경제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조 원이며,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이 경제의 총화폐공급은 현재 30조 원이다. 다음 표는 이 경제의 이자율에 따른 총화폐수요, 총투자, 실질국민소득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자율(%)	총화폐수요(조 원)	총투자(조 원)	실질국민소득(조 원)
1	70	120	440
2	60	110	420
3	50	100	400
4	40	80	360
5	30	50	320

- ① 실질국민소득이 완전고용수준과 같아지려면 중앙은행은 총화폐공급을 20조 원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 ② 현재 이 경제의 실질국민소득은 완전고용수준보다 40조 원만큼 작다.
- ③ 중앙은행이 총화폐공급을 지금보다 30조 원만큼 증가 시키면 균형이자율은 1%가 된다.
- ④ 현재 이 경제의 균형이자율은 4%이다.

풀이) 답 ①

실질국민소득(400)이 완전고용수준(400)과 같아지려면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은 3%이어야 하고 이때 화폐수요가 50(조 원)이므로 중앙은행은 총화폐공급을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10(조 원)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현재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은 5%이므로 현재 이 경제의 실질국민소득은 320(조 원)이므로 완전고용수준보다 80조 원만큼 작다.

17. <보기>에서 임대료 규제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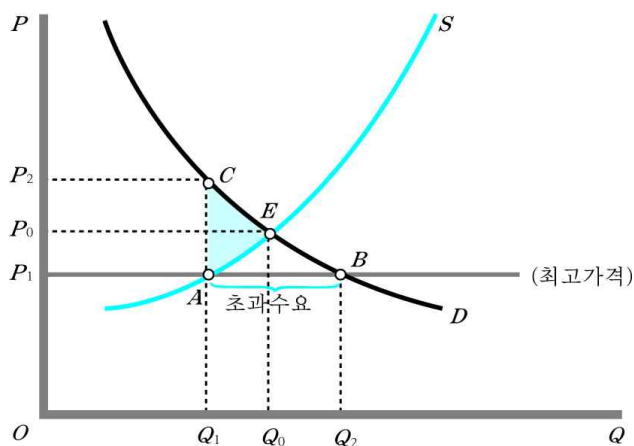
- ㄱ. 암시장의 발생 가능성 증가
 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의 감소
 ㄷ. 주택의 질적 수준의 하락
 ㄹ. 비가격 방식의 임대방식으로 임대주택의 비효율성 발생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ㄹ

풀이) 답 ④

- ㉠ 최고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므로 수요량은 증가 하는 반면 공급량은 감소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 ㉡ 초과수요 때문에 재화의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선착순제, 배급제, 추첨제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회)비용이 발생
- ㉢ 판매자가 재화를 빼돌리거나 배분 받은 재화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므로 암시장(black market)이 발생 $\Rightarrow$ ㄱ.
- ㉣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생산자잉여가 $\square P_0 E A P_1$ 만큼 감소하여 사회적 후생이 감소 $\Rightarrow$ ㄴ..
- ㉤ 생산자는 생산자잉여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재화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Rightarrow$ ㄷ.
- ㉥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더욱 심하게 한다. $\Rightarrow$ ㄴ.

▪ 최고가격제



- ① 최초균형점 E점에서
가격 = P_0 , 균형량 = Q_0
- ② 최고가격이 P_1 으로 결정되면
 $AB(Q_2 - Q_1)$ 만큼의 초과수요 발생
- ③ 공급량이 Q_1 으로 감소하여
암시장이 발생 :
암시장 가격 = P_2
- ④ 사회적 후생손실
 $\triangle ACE$ 발생

18.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사용을 고려한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두 정책의 상대적 효과는 소비와 투자 등 민간지출의 이자율탄력성 크기와 관련이 있다.
- ② 두 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 ③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한다면 두 정책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④ 두 정책 간의 선택에는 재정적자의 누적이나 인플레이션 중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 일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풀이) 답 ②

- 1) 확대재정정책: 정부지출 증가(ΔG) $\rightarrow$ IS곡선 우측이동 (ΔG 의 승수배 = $Y_1 - Y_0$)
 $\rightarrow$ 소득이 증가(Y_1) $\rightarrow$ 거래적 화폐수요 증가 $\rightarrow$ 화폐시장의 초과수요
 $\rightarrow$ 이자율이 상승($r_0 \rightarrow r_1$) $\rightarrow$ 투자감소(총지출 감소) $\rightarrow C+I$ 하방이동 $\rightarrow$ 소득이 감소(Y_2)
- 2) 확대금융정책: M^S 증가 $\rightarrow$ 화폐시장 초과공급 $\rightarrow$ LM곡선 우하방이동 $\rightarrow$ 이자율(r) 하락
 $\rightarrow$ 투자(I)증가 $\rightarrow$ 총수요(Y^D)증가 $\rightarrow$ 국민소득(Y)증가, 이자율 일부 상승

19. 어떤 마을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총 3개 있다. 오염물 배출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각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배출량과 그 배출량을 한 단위 감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기업	배출량(단위)	배출량 단위당 감축비용(만 원)
A	50	20
B	60	30
C	70	40

정부는 오염배출량을 150단위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래서 각 기업에게 5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 배출권을 기업들이 자유롭게 판매/구매할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오염배출권 한 개당 배출 가능한 오염물의 양은 1단위 이다.)

- ① 기업 A가 기업 B와 기업 C에게 오염배출권을 각각 10단위와 20단위 판매하고, 이때 가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형성된다.
- ② 기업 A가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고, 이때 가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 ③ 기업 A가 기업 B에게 1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 하고, 기업 B는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한다. 이때 가격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 ④ 기업 B가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고, 이때 가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풀이) 답 ①

- 1) 만일 가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면 기업 A가 기업 B는 감축비용이 적으므로 오염배출권 모두 100단위를 팔려고 공급하려하고 기업 C는 오염배출권 50을 초과하는 20만큼 수요 하려하므로 초과공급이 이루어져 가격은 하락한다.
- 2) 만일 가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면 기업 A가 오염배출권 50을 팔려하나 기업 B와 기업 C는 오염배출권 50을 초과하는 10과 20만큼씩을 구매하고자 한다.
- 3) 만일 가격은 20만 원 이하이면 모든 기업이 오염배출권을 구매하고자 하므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큰 경우는 2)의 경우로 가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며 기업 A가 오염배출권 30을 팔고 기업 B와 기업 C는 오염배출권 50을 초과하는 10과 20만큼씩을 구매한다.

20. 어떤 사람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의 절반을 식료품 구입에 사용한다.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 |
|--|
| ㄱ. 식료품의 소득 탄력성의 절댓값은 1보다 작다.
ㄴ. 식료품의 소득 탄력성의 절댓값은 1이다.
ㄷ. 식료품의 가격 탄력성의 절댓값은 1보다 크다.
ㄹ. 식료품의 가격 탄력성의 절댓값은 1이다. |
|--|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풀이) 답 ④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 =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모든 점에서 1이다.
= 소비자의 총지출액이 항상 일정하다.

가격에 상관없이 소득의 일정액을 사용하면 소비자지출액이 일정($P \times Q = \text{일정}$)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직각쌍곡선형태의 수요곡선)이며 한편 소득이 증가 시 소득 일정액을 사용하면 소득증가율과 수량증가율이 같으므로 소득탄력성정의에 의해 소득탄력성이 1이다.
즉, 둘 다 단위 탄력적이다.